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양계민 선임연구위원
정윤미 전문연구원
한지형 전문연구원

요약¹⁾

- 조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조사대상** ▶ 2019년도 구축된 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대상자로,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1,733명,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150명,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113명,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249명으로 총 2,245명이며, 한 가구에 쌍둥이 또는 동일한 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조사에 참여시킴.
-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의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으로 1:1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으로 추진됨.
- 조사기간** ▶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음.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과제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를 발췌·요약한 것임.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함.

- 학업관련 변인은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등 총 4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봄.
- 개인적 특성으로 지역규모, 국적에 대한 인식, 사교육 경험 여부, 학교 안팎의 사회적 지지, 부모 학력수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희망수준,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수혜경험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

1 지역규모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 현재의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를 비교함.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거주지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 거주자가 728명(32.4%), 중소도시가 814명(36.3%), 읍면지역이 703명(31.3%)으로 나타남.
- 거주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희망교육수준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희망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적응, 성적수준, 성적만족도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1 지역규모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표준편차)

변인	대도시 _a (n=728)		중소도시 _b (n=814)		읍면 _c (n=703)		F	사후검증	대비분석(t/p) ¹⁾
학교생활적응	3.25	(0.51)	3.20	(0.50)	3.20	(0.51)	2.30	–	2.14
성적	3.43	(0.76)	3.41	(0.79)	3.35	(0.75)	2.24	–	1.49
성적만족도	3.02	(0.64)	2.95	(0.70)	2.96	(0.69)	1.85	–	1.88
희망교육수준	1.99	(0.50) _a	1.90	(0.55) _b	1.86	(0.54) _b	11.10***	a>b,c	4.46***

1) 대도시와 중소도시+읍면 지역을 비교한 대비분석임. *** $p<.001$

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2021: 233),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 국적인식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 조사대상자들에게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71.4%인 1,602명은 '한국사람'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9.4%인 211명은 '본국사람'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사람이기도 하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381명으로 17%임. 나머지 51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함.

- 본인의 국적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 네 가지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본인이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사람이기도 하다’고 응답한 이중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국적인식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표준편차)

변인	한국사람 ^a (n=1,602)	본국사람 ^b (n=211)	한국+본국사람 ^c (n=381)	잘 모르겠다 ^d (n=51)	F	사후검증
학교생활적응	3.21(0.49)	3.23(0.54)	3.28(0.53)	3.07(0.48)	3.785**	c>a,d
성적	3.40(0.75)	3.19(0.85)	3.55(0.75)	3.16(0.97)	11.825***	c>a,b,d / a>b
성적만족도	2.98(0.66)	2.77(0.77)	3.09(0.66)	2.75(0.84)	12.551***	c>a,b,d / a>b
희망교육수준	1.90(0.51)	1.99(0.59)	1.97(0.57)	1.75(0.59)	4.709**	b,c>d

** $p<.01$, *** $p<.001$

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2021: 237),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3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교육 경험을 비교한 결과 교과목의 경우는 경험자가 1,204명(53.6%), 무경험자가 1,019명(45.4%)이었고, 특기적성교과목은 경험자가 1,043명(46.4%), 무경험자가 1,180명(52.6%)으로 나타남.
- 교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기적성교육의 경우도 역시 사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사교육 경험 여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구분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교과목	예(n=1,204)	3.25(0.49)	3.48(0.76)	3.02(0.67)	1.96(0.52)
	아니오(n=1,019)	3.19(0.52)	3.30(0.76)	2.93(0.69)	1.87(0.54)
	t	2.486*	5.824***	3.280***	4.195***
특기 적성	예(n=1,043)	3.25(0.51)	3.47(0.78)	3.03(0.68)	1.95(0.53)
	아니오(n=1,180)	3.20(0.50)	3.33(0.75)	2.93(0.68)	1.88(0.53)
	t	2.306*	4.238***	3.226***	3.118**

* $p<.05$, ** $p<.01$, *** $p<.001$

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2021: 268),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4 학교 안팎의 사회적 지원 여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 학교 내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기반의 유무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질문함.
- 학교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1,880명(83.7%),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365명(16.3%)임.
-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부모 제외)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1,205명(53.7%),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1,040명(46.3%)임.
- 학교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하여 학교생활 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음.
- 학교 밖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경우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서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학업관련 요인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4 학교 안팎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구분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
학교 내	있음 (n=1,880)	3.27(0.49)	3.44(0.77)	3.02(0.66)	1.93(0.54)
	없음 (n= 365)	2.96(0.51)	3.20(0.73)	2.74(0.71)	1.85(0.51)
	<i>t</i>	11.119***	5.429***	7.268***	2.755***
학교 밖	있음 (n=1,205)	3.30(.48)	3.46(.75)	3.06(.66)	1.95(.54)
	없음 (n=1,040)	3.13(.52)	3.32(.79)	2.88(.69)	1.88(.53)
	<i>t</i>	8.370***	4.149***	6.036***	2.978***

*** $p<.001$

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2021: 239),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5 부모 학력수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모의 학력분포를 살펴봄.
-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266명(11.8%), 고졸이 1,193명(53.1%), 전문대졸이 169명(7.5%), 대학교졸업 이상이 378명(16.8%)임(※괄호안의 비율은 전체집단 기준 비율임).
-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665명(29.6%), 고졸이 1,003명(44.7%), 전문대졸이 240명(10.7%), 대학교졸업 이상이 337명(15.0%)임.

-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의 경우,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학교생활적응, 성적, 희망교육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 학력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만족도, 희망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5 부모 학력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아버지					어머니				
학력수준	학교생활 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 교육수준	학력수준	학교생활 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 교육수준
중졸이하 _a (n=266)	3.18 (0.56)	3.36 (0.83)	2.95 (0.74)	1.88 (0.55)	중졸이하 _a (n=665)	3.20 (0.51)	3.35 (0.77)	2.97 (0.68)	1.84 (0.54)
고졸 _b (n=1,193)	3.21 (0.49)	3.37 (0.74)	2.97 (0.67)	1.89 (0.52)	고졸 _b (n=1,003)	3.19 (0.49)	3.37 (0.76)	2.94 (0.69)	1.91 (0.50)
전문대졸 _c (n=169)	3.28 (0.48)	3.38 (0.75)	2.95 (0.68)	1.96 (0.59)	전문대졸 _c (n=240)	3.30 (0.50)	3.45 (0.76)	3.04 (0.65)	1.98 (0.56)
대졸이상 _d (n=378)	3.27 (0.55)	3.54 (0.81)	3.06 (0.66)	2.05 (0.52)	대졸이상 _d (n=337)	3.29 (0.52)	3.53 (0.79)	3.04 (0.66)	2.04 (0.56)
<i>F</i>	2.85*	4.81**	1.98	9.87***	<i>F</i>	5.87***	5.18***	2.65*	12.38***
사후검증		d>a,b		d>a,b	사후검증	d>a,b c>b	d>a,b		d>a,b c>a

* $p<.05$, ** $p<.01$, *** $p<.001$

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2021: 266),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6 자녀학교문제와 숙제지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어머니 자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76명(34.6%), 남편이라는 응답이 631명(28.1%), 부부공동이라는 응답이 499명(22.2%), 가족 및 친인척이라는 응답이 82명(3.7%), 학원 등의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205명(9.1%), 자녀 스스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30명(1.3%)임. 따라서 어머니가 지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남편, 부부공동, 학원 등의 선생님, 가족 및 친인척, 스스로 등의 순서임(※괄호안의 비율은 전체집단 기준 비율임).

■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른 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하는 사람별로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Tukey 사후검증결과, 희망교육수준을 제외한 학업관련 변인에서 학원 등의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이 나머지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보다 낮은 경향이 나타남.

- 학교생활적응의 경우는 자녀의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를 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거나 '남편', '부부공동'인 경우, '학원 등의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적의 경우 역시 자녀의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를 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거나 '남편', '부부공동'인 경우 '학원 등의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지도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으며, '학원 등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낮음.
- 희망교육수준의 차이는 '스스로 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낮고, '학원 등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두 번째로 낮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6 자녀 학교문제와 숙제 지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나 _a (n=776)	남편 _b (n=631)	부부공동 _c (n=499)	가족 및 친인척 _d (n=82)	학원 등의 선생님 _e (n=205)	스스로 _f (n=30)	F	사후 검증
학교생활적응	3.25(0.50)	3.22(0.50)	3.24(0.50)	3.15(0.56)	3.09(0.54)	3.20(0.46)	3.695**	a,b,c>e
성적	3.41(0.76)	3.36(0.77)	3.44(0.78)	3.59(0.78)	3.24(0.75)	3.50(0.63)	3.531**	a,b,c>e
성적만족도	3.00(0.68)	2.96(0.67)	2.96(0.67)	3.15(0.59)	2.88(0.73)	3.10(0.61)	2.271*	d>e
희망교육수준	1.94(0.55)	1.89(0.50)	1.96(0.52)	1.90(0.56)	1.83(0.53)	1.70(0.60)	3.318**	-

* $p<0.05$, ** $p<0.01$

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2021: 268),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7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희망수준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을 비교함. 이를 위하여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기 원하는지 부모의 희망수준을 파악한 결과, '고등학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97명(4.3%), '대학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1,807명(80.5%), '대학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9명(14.2%)으로 대다수는 대학교 졸업까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괄호안의 비율은 전체집단 기준 비율임).

■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에 따라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즉,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모두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교육수준이 '대학원'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음.

- 다만, 학교생활적응의 경우는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과 ‘대학교’인 집단의 평균차이는 없음.

표 7 부모 희망 자녀교육수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변인	고등학교 이하 _a (n=97)	대학교 _b (n=1,807)	대학원 _c (n=319)	F	사후검증
학교생활적응	3.21(0.56)	3.20(0.50)	3.33(0.52)	7.876***	c>b
성적	3.15(0.83)	3.37(0.75)	3.61(0.81)	17.621***	c>b>a
성적 만족도	2.77(0.73)	2.97(0.67)	3.05(0.70)	6.442***	b,c>a
희망교육수준	1.64(0.52)	1.89(0.50)	2.18(0.60)	60.177***	c>b>a

*** $p<.001$

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2021: 269),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8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경험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의 차이

■ 다문화정책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학업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교육,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 심리적응 프로그램, 물질·금전적지원, 진로프로그램 등 총 8가지 종류의 정책에 대한 지원경험 여부를 조사함.

- 자녀 한국어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597명(26.6%), 이중언어교육 경험자가 309명(13.8%), 학습지원은 1,063명(47.3%), 특기적성교육은 451명(20.1%), 체험활동은 1,086명(48.4%), 심리적응 프로그램은 281명(12.5%), 물질·금전적 지원은 461명(20.5%), 진로프로그램은 220명(9.8%)인 것으로 나타나, ‘체험활동’과 ‘학습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진로프로그램 경험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기적성 교육 지원’, ‘체험활동 지원’, ‘물질·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평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 한국어교육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학습지원’,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진로프로그램 지원’ 경험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언어교육 지원’, ‘체험활동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의 성적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평균 성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기적성교육 지원’, ‘체험활동’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의 성적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평균 성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리적응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희망교육수준 평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심리적응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희망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다는 ‘심리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니는 특성이 낮은 희망교육수준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8 다문화정책 지원경험 여부별 학업관련 변인의 평균

정책지원	경험여부	학교생활적응	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자녀 한국어교육 지원	있다(n=597)	3.24(0.53)	3.38(0.78)	2.95(0.72)	1.93(0.54)
	없다(n=1,626)	3.22(0.50)	3.41(0.76)	2.99(0.66)	1.91(0.53)
	t	0.897	-0.773	-1.272	0.554
이중언어교육 지원	있다(n=309)	3.27(0.51)	3.48(0.77)	3.04(0.70)	1.95(0.55)
	없다(n=1,914)	3.21(0.50)	3.38(0.77)	2.97(0.67)	1.91(0.53)
	t	1.794	2.009*	1.648	1.206
학습지원	있다(n=1,063)	3.20(0.50)	3.39(0.77)	2.98(0.68)	1.91(0.54)
	없다(n=1,160)	3.24(0.51)	3.41(0.77)	2.98(0.67)	1.93(0.52)
	t	-1.911	-0.648	-0.008	-0.999
특기적성 교육 지원	있다(n=451)	3.30(0.50)	3.45(0.77)	3.06(0.69)	1.91(0.59)
	없다(n=1,772)	3.20(0.51)	3.38(0.77)	2.96(0.67)	1.92(0.51)
	t	3.720***	1.764	2.846**	-0.186
체험활동 지원	있다(n=1,086)	3.25(0.51)	3.43(0.73)	3.02(0.67)	1.92(0.57)
	없다(n=1,137)	3.19(0.50)	3.36(0.80)	2.94(0.68)	1.92(0.50)
	t	2.700**	2.166*	2.781**	-.048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	있다(n=281)	3.22(0.49)	3.41(0.81)	3.00(0.68)	1.85(0.61)
	없다(n=1,942)	3.22(0.51)	3.40(0.76)	2.97(0.68)	1.93(0.52)
	t	-0.158	0.271	0.712	-2.150*
물적·금전적 지원	있다(n=461)	3.27(0.49)	3.38(0.76)	2.97(0.69)	1.88(0.56)
	없다(n=1,762)	3.21(0.51)	3.40(0.77)	2.98(0.67)	1.93(0.52)
	t	2.341*	-0.431	-0.248	-1.780
진로프로그램 지원	있다(n=220)	3.21(0.49)	3.43(0.79)	3.02(0.71)	1.91(0.59)
	없다(n=2,003)	3.22(0.51)	3.39(0.77)	2.97(0.68)	1.92(0.52)
	t	-0.279	0.603	1.062	-0.253

* $p<.05$, ** $p<.01$, *** $p<.001$

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2021: 270-27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참고문헌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